

영화 『신과함께』의 서사구조와 인물형상

김명석 *

|| 차례 ||

1. 들어가며
2. 서사구조 분석
3. 인물 형상과 대립구조
4. 나오며

[국문초록]

『신과함께』 1편은 원작 웹툰의 “저승편”을, 2편은 “이승편”을 기본으로 한다. 1, 2편은 현생이라는 시간과 현대 한국 사회와 저승길, 7지옥이라는 공간 그리고 자홍, 수홍, 삼차사, 저승시왕 등의 인물을 모두 공유한다. 특히 2편에서는 1000년 전 고리를 배경으로 삼차사의 전생 이야기가 밝혀진다.

자홍(1편)과 수홍(2편)은 ① 죽음, ② 저승, ③ 환생이라는 세 단계의 여정을 거친다. 두 영화에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인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인간화를 통한 서사의 비극적 전환이 드러나고, 전통과 현대적 요소의 융합을 통해 서사가 확장되며 시대적 트렌드까지 반영되면서 독특한 세계관이 펼쳐진다.

제주도가 〈차사본풀이〉가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제작되면서 수사적 변형,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이 일어났다. 이승과 저승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이들은 가해자, 피해자와 해결자 그리고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명과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준다.

한국 신화와 저승관을 모티브로 삼아 구성된 영화 『신과함께』 1, 2편에는 이승과 저승의 공간성과 아이러니가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죽음이란 삶의 한 조각일 때들이요, 산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관객의 몫이 된다.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kimms@uu.ac.kr

40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주제어: 신과함께, 저승편, 이승편, 삶과 죽음, 저승, 환생, 차사본풀이, 저승관

1. 들어가며

“『신과함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된 주호민의 웹툰이다. “저승편(2010)”을 시작으로 “이승편(2011)”과 “신화편(2012)”, 세 편이 유니버스 형식으로 연재되었다. 1부작 ‘저승편’ 마지막 회에는 1만개의 댓글이 달렸다. 3편 연재가 끝난 뒤에도 네이버 완결 웹툰 조회수 1위를 차지했고 유료화된 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기준으로 네이버북스 주간 만화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1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만화 부문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일본 만화 잡지에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이밖에 뮤지컬, 라디오 드라마, 게임으로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김용화 감독에 의해 2017년 12월 개봉한 1편 『신과함께-죄와 벌』은 역대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였고 2018년 8월 개봉한 2편 『신과함께-인과연』도 공전의 흥행을 기록하였다. 곧 TV드라마도 나올 예정이라니 『신과함께』는 국내 OSMU(One Source Multi Use) 역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¹⁾

사실 이런 흥행은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데 이를 조형래는 “영화적 스타일 및 스펙타클”이 “관객 일반이 ‘보는 방법(way of seeing)’과 부단히 절합”했다는 데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소위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흥행을 보장한 “관습적 시퀀스”가 환기하는 “시각적 형식의 익숙함”이 “관객의 요구에 부합”했다는 것이다.²⁾ 이 견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관객의

1) 이 단락을 참고, 『영화로 보는 종교』, 위덕대학교출판부, 2018, 67면을 재인용하고 정리함.

2) 영화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조형래의 논문이 처음이지만 1편 『신과함께-죄와 벌』에 국한되어 있다: 조형래,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8.08, 475면 참고. 이 밖에 비평으로는 김영진, 「『강철비』 『신과함께-죄와 벌』 『1987』 세 편의 한국영화에 대하여-상품, 예술, 계몽의 자리」, 『씨네21』, 씨네21(주), 2018.1.24, 송경원, 「강철비」 『신과함께-죄와 벌』

눈높이와 기대에 맞춘 재미요소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웹툰에서 영화로 성공적인 각색이 이루어진 데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조형래는 주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흥행 요인에 주목하는 듯 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하위 전략으로 설명하자면 웃음이나 신과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저승시왕이 주재하는 지옥은 이승의 법정을 패러디한 것이다. “1편에서 특히 이채로운 것은 이승의 현실이 저승에 장치된 것이다. 자홍 일행이 지옥을 통과하면서 놀이공원이나 있을 법한 보트, 리프트같은 것을 타고 가거나, 거해지옥에는 태산대왕이 커다란 막대사탕을 문 어린 여아로 등장하고 지금 성인들이 어린 시절 보았던 만화에 나올 법한 컴퓨터 기기가 설치된 것은 우리가 익숙한 현실 공간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런 패러디 기법은 현실에 대한 비틀기”이다. “유머로서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연출방법은 관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정이입을 도모하여 재미를 만들어낸다.”³⁾

또 영화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묘사를 가급적 줄이는 대신 이승에서 귀인 김자홍의 선한 인생담을 끝도 없이 들려준다. 관객이 그의 선행에 감동해서 눈물을 쏟 빼는 것도 선한 체험이며 카타르시스라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 1편은 모친에 대한 자홍의 속깊은 효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신과가 흥행의 주 요인이다. 2편은 삼차사의 저승담을 중심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이런 드라마적 요소도 흥행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관객들이 호응할 법한 모성의 극적인 확인이라는 결말을 향해 조금하게” 내달은 것은 영화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⁴⁾ 감정을 강조한 신

『1987』, 김소희-송형국-안시환 평론가 대담, 『씨네21』, 씨네21(주), 2018.1.10과 『강철비』 『신과 함께-죄와 벌』 『1987』 이 기댄 한국적 신과라는 환상-눈물의 알파람에 대하여, 『씨네21』, 씨네21(주), 2018.1.30가 있고 기사로는 「편파적인 씨네리뷰」 『신과 함께』 통 큰 ‘재능 낭비’, 『스포츠경향』, 2017.12.13가 있다.

3) 이 단락을 「영화로 보는 종교」, 77면을 재인용해서 정리함.

4) 이밖에 “배우들의 연기”가 “기존의 이미지를 소모하는 데” 그친다거나 “살과 죽음 및 선악에 관한 윤리적 근본 문제 또한 외면”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본고의 4장에서 잠시 언급될 것이다: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472면 참고.

40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과적 연출은 논리보다 감성에 치우쳐 이야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장면 장면이 관객의 몰입을 강화하고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촉진하는데는 성공하지만 인과에 따른 견고한 구성이 어렵다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웹툰 〈신과함께〉에 대한 연구는 강미선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는데 신화적 상상력의 의미를 규명하였다. 김진철은 웹툰에 수용된 제주신화의 양상을 밝혀냈으며, 황인순은 〈차사본풀이〉와 웹툰의 공간 관계와 인물들의 공간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로 원천서사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 신화의 변용양상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대범은 OSMU(One Source Multi Use)로 활용된 양상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고 김정옥은 다문화교육자료로서 가치를 살펴보았다. 정수희는 웹툰의 문화교육자료로서의 가치와 저승관의 현대적 변용을 모색하였다. 양진호는 시왕 이미지의 현대 콘텐츠 변용을, 이상민은 웹툰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를 연구했으며 장은진은 한국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후세계의 환상성을 고찰했다. 윤영석은 한국신화에 대한 연구를, 이명현은 〈신과함께〉 “신화편”에 나온 신화적 세계를, 정제호는 서사수가 그리고 차사형 인물의 콘텐츠 활용과 스토리텔링 양상을 연구했다.⁵⁾

5) 강미선, 「웹툰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웹툰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정책』 5권,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11; 김진철, 「웹툰의 제주신화 수용 양상-신과 함께 『신화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2015; 김진철,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황인순,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 〈신과함께〉와 〈차사본풀이〉의 비교를 통해」,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김대범, 「〈신과함께〉의 체험 공간화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김정옥, 「전통문화 교육 자료로서 웹툰의 활용에 대한 고찰-〈신과함께〉에 반영된 저승관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 정수희, 「전통문화콘텐츠의 현대적 활용-웹툰 『신과 함께』 이승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 양진호, 「시왕 이미지의 현대 콘텐츠 변용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6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5; 이상민, 「『신과 함께』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 연구」, 『대중서사연구』 22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6; 장은진, 「한국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후세계의 환상성-웹툰 『신과 함께』 저승편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1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6; 윤영석, 「한국 서브컬처에서 한국 신화에 대한 연구」,

최수용은 기존 연구를 크게 한민족 신화의 변용양상 연구와 작품의 세계관에 대한 연구로 나누기도 한다.⁶⁾ 웹툰 〈신과함께〉 세계관의 배경공간이라면 주로 웹툰 “저승편”과 “이승편”의 시공간이 될 것이다. 한편 영화의 경우 스토리텔링의 특징인 이승과 저승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간과하여 한계를 노출했다는 조형래의 견해도 있다.⁷⁾

본고에서는 영화 『신과함께』 1, 2편의 서사구조와 인물형상에 숨은 의미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무속신화와 저승관을 모티브로 구성된 영화 내용은 인간의 삶에 대한 현재의 이야기이다. 그런 담론이 『신과함께』를 보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글을 통해 고찰되기를 기대한다.

2. 서사구조 분석

『신과함께』 2편은 원작 웹툰의 “이승편”을 기본으로 한다. “웹툰은 web 과 cartoon의 합성어로, web은 인터넷이니 웹툰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환경에 맞춰 제작되고 배포되는 만화를 말한다. 웹이라는 디지털 기반의 환경은 가상공간이다. 바로 저승과 전생의 공간이 가상공간인 것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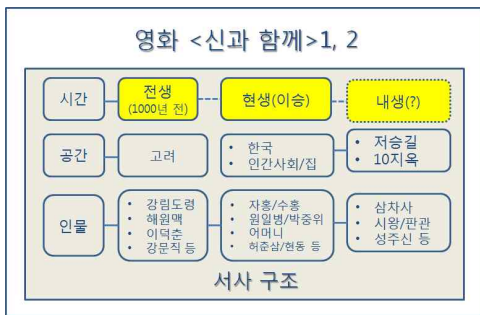
“영화는 판타지 액션 드라마로,” “1편은 귀인 김자홍이 사후 49일 동안 7

- 『만화에니메이션연구』 41호, 한국에니메이션학회, 2015; 이명현, 「『신과 함께』 신화편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의 재편」, 『구비문학연구』 4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5; 정계호, 「서사무가의 콘텐즈 활용 유형과 스토리텔링 양상」, 『일본학연구』 5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정계호, 「서사무가에 나타난 차사형 인물의 콘텐즈 활용 양상과 스토리텔링 전략」, 『동양고전연구』 68집, 동양고전학회, 2017.
- 6) 최수용, 「주호민의 〈신과함께〉에 나타난 한민족 신화 활용 스토리텔링 연구」, 『동아인문학』 41, 동아인문학회, 2017.12, 75면.
- 7) 그는 “(연구가) 한국인 일반의 무의식 내지는 충동의 차원과 깊이 연루되거나 접촉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국인 일반의 (집단)무의식이라면 상술한 원천서사를 고찰해야 하나 그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관객 일반의 눈높이에만 주목하는 듯 하다. 그가 원천서사나 원작 웹툰에 대한 선행연구를 언급하지 않은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494면.

40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번의 지옥 재판을 무사히 거처야만 환생할 수 있다는 전체로 지옥문을 통과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2편은 수홍의 재판, 강림의 과거, 차사들과 가택신의 등거 등 세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1, 2편 모두 이승과 저승 이야기가 평행구조로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렇게 〈신과함께〉 1, 2편에서 전통적인 저승관이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된 것은 필연처럼 보인다.”⁸⁾ 1, 2편은 현생이라는 시간과 현대 한국사회와 저승길, 10지옥이라는 공간 그리고 자홍, 수홍, 삼차사, 저승시왕 등의 인물을 모두 공유한다. 그러나 1000년 전 고리를 배경으로 한 삼차사의 전생 이야기와 수홍이 저승에서 7지옥을 통과하는 이야기는 2편에만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2편의 이런 이야기들은 순전히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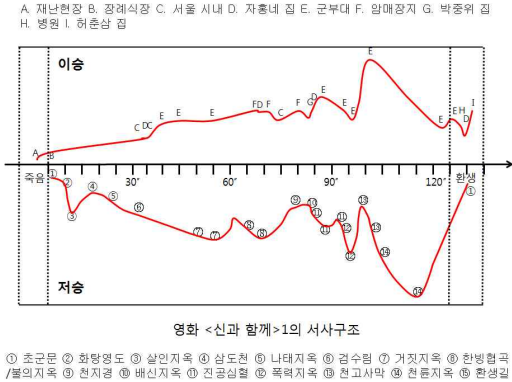
영화 <신과 함께> 1, 2의 서사구조 분석 모형

영화 1편은 웹툰 “저승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었다. 1편에서 김자홍이 49일 동안 저승 심판을 받는 여정을 저승담이라면 군대에서

8) 줄고, 『영화로 보는 종교』, 위덕대학교출판부, 2018, 68-69면에서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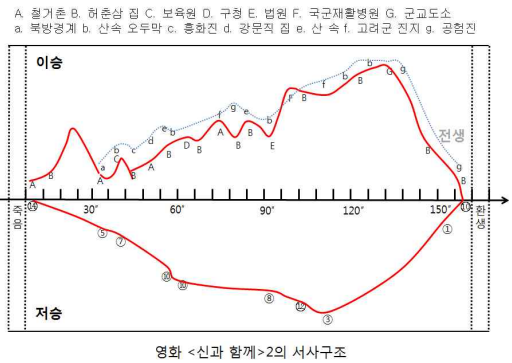
의문사를 당해 원귀가 된 김수홍의 한을 푸는 이야기를 이승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다시 수홍이 49일 동안의 저승여정을 통과하는 저승담과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리러 이승으로 간 차사들이 겪는 이야기인 이승담이 펼쳐진다. 이처럼 두 영화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서사가 두 개의 층위로 병행처럼 달리듯 병렬해서 진행된다.

영화 속에서 저승서사와 이승서사는 기승전결이 있는 명확한 사건 단위의 구조로 그려진다.⁹⁾ 135분여에 걸친 1편의 서사구조를 시간대에 따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9) 조형래는 “각급 지옥의 판결을 거쳐 가는 구성이 스테이지 별로 미션을 수행하고 달성해가는 (주요 장면별로 분할되기 용이한) 게임의 일반적 형식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486면.

41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1, 2편은 모두 죽음에서 출발하여 저승여정을 거쳐 환생으로 끝나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2편이 1편과 가장 다른 점은 재개발을 앞둔 동네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지키려는 성주신을 통해 삼차사의 전생담이 또 다른 서사로 전개되는 것이다. 위에서는 점선을 따라 알파벳 소문자로 공간을 표시한 또 다른 서사가 그래프로 그려져있다.

1편이 원작 “저승편”을 원형으로 했듯이, 이승보다 저승의 서사가 더 폭절 있고 심도깊다. 반면에 2편에서 저승서사는 완만하게 전개되다가 위기, 절정으로 치달는다. 이와 달리 이승서사와 전생서사는 확연히 폭절있고 심도깊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1편 저승담에서 위기가 절정으로 치달는 시퀀스는 단연 천문지옥(⑫)이다. 자홍이 폭력 및 존속살인으로 기소되어 환생이 좌절될 뻔한 위기상황이다. 그리고 이승담에서는 군부대 시퀀스(E)로, 원귀의 원한이 되살아나서 군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시퀀스에서 절정으로 치달는다.

한편 2편 이승담에서는 국군재활병원(F)과 군교도소(G)로, 원일병과 박대위가 저승으로 불려와 증인으로 심문당하는 시퀀스에서 위기가 절정에 치달는다. 2편 저승담에서는 이곳이 바로 폭력지옥(⑫), 살인지옥(③)으로 역시 위

기가 치솟는다. 그리고 2편 전생담에서는 산 속 오두막(b)과 공혈진(g)에서 위기가 절정으로 치달는다. 바로 해원백과 덕춘, 강림이 서로 죽고 죽이는 1000년의 악연으로 맺어지는 시퀀스(b)이며, 강림이 아버지가 살아 있음을 알고 돌아왔다는 시퀀스(g)에서이다.

전체적으로 “1편은 일곱 지옥을 통과하는 김자홍의 저승담이 동생 김수홍의 의문사를 다룬 이승담보다 더 비중이 크다면 2편은 허춘삼 할아버지와 현동이의 이승담이 일곱 지옥을 통과하는 수홍의 저승담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1편의 저승담이 2편의 저승담보다 더 심연 속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1편과 2편 모두 영화 속 시공간에 저승과 이승이 공존 병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¹⁰⁾

1편에서는 자홍과 수홍 형제와 삼차사의 저승서사가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이승서사와 순차적으로 전개되지만 2편에서 이승의 전생서사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시간의 역행방식으로 전개되는 서술구조라 할 수 있다. 1, 2편 모두에서 이들이 지옥문 하나하나 통과하며 겪는 여정은 단순하지 않다. 자홍과 수홍은 현생에서처럼 하나의 지옥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고조되다가 해소된다.

1, 2편 모두 죽음에서 출발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상기 그래프의 서사들은 처음부터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다. 두 형제가 겪는 액은 운명적인 고난의 연속이다. 저승담과 이승담을 통해 이들의 죽음은 삶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1편에서 자홍과 수홍의 죽음은 육신의 소멸이 되겠지만 어머니의 꿈에 수홍이 현몽하고 전기방송에 남겨둔 자홍의 편지가 전달됨으로써 이승적 존재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그들은 돌연 죽음을 맞지만 1, 2편의 마지막에 귀인으로 인정받아 환생함으로써 죽음이 소멸이 아님을 보여준다.

웹툰에서 그렇듯이 영화에서도 “차사본풀이”같은 신화 속의 인물들이 보통 사람 형상으로 등장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가 친근하고 코믹하게 펼쳐진다. 결국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저승이나 차사같은 요소가

10) 이 단락은 『영화로 보는 종교』, 70면에서 재인용함.

41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재구성된 콘텐츠로 만들어진 셈이다.¹¹⁾ 이런 융합과 철거민의 비극 등 시대적 트렌드까지 반영하여 서사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프로프의 민담 변형 유형에 따르면 영화 내용이 웹툰 서사를 변형한 데서 수사적 변형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웹툰 내용과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차사본풀이에서 웹툰으로의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은 영화에서도 큰 차이 없다고 할 것이다.¹²⁾

이것은 중국의 저승관과 한국의 무속적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한 결과물이다. 1, 2편에서 자홍과 수홍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겪는 저승여정은 기존의 전통적 저승세계관을 기초로 하지만 현대적으로 변용된 여러가지 요소들과 스토리텔링된 것이다. 이런 현대적 변용으로 흥미 요소를 이끌어 낸 것이 흥행의 비결이라 할 것이다.

1편에서 이승담의 서사는 원귀의 탈출, 원귀의 원한 풀이, 원귀의 저승으로 돌아가기의 3막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원귀와 저승차사, 전우, 소대장간에 벌어지는 갈등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가 된다.¹³⁾ 사실 영화에서 원

11) 원작 웹툰의 경우 김진철,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한국콘텐츠학회, 2015.08. 91면 참고.

12)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과정에서는 기존 신화의 변형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프로프의 민담의 변형 유형을 수사적 변형,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으로 구분한다. 수사적 변형은 모티프가 그대로 복제되거나,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경우이고 논리적 변형은 모티프가 제시하는 논리와 대응되는 논리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역사적 변형은 모티프들의 내용이 사회의 역사와 함께 변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철은 <차사본풀이에서 웹툰 <신과함께>로 변형된 유형으로 이 세가지틀을 들고 있다: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87면.

13) 이것은 웹툰 “이승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예, 「원초소로서 무속신앙 활용방안 연구-웹툰 <신과함께>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02. 22면. 영화에서는 강림이 원귀를 달래서 저승으로 데려가기 전에 망자를 위한 위령제라며 군부대 생활관을 세 바퀴 돌아주는 장면으로 해혼의 과정이 단순화되어 있다. 아무튼 이 영화의 원천서사 중 하나인 “차사본풀이”가 그러하듯 원귀서사는 원혼담문에 해당된다. 원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속의례의 長技이다. 원혼담문은 우리 문화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문화문법으로 원혼과 해원의 문제는 한국인의 무의식과 연관되는 율령의 한 방향성이다: 강진옥 (2010).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12, 214면.

귀와 강림차사 사이에 벌어지는 추격신과 군부대에서 모래폭풍 신 등은 할리우드 스펙타클을 연상케 한다.¹⁴⁾ 이것을 무속서사에서 보자면 원혼과 해혼의 과정이다. 그러나 두 형제의 저승여정은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아니며 환생이 단순한 이승으로의 귀환이 아니다. 이들 모두 단명했지만 운명적 재역은 성공적으로 극복된다. 그래서 환생은 두 형제가 이승에서의 원한과 업장을 저승에서 벗어난것을 의미한다.

사실 죽음은 영화에서 대단히 식상한 소재이며 지옥문을 통과하는 전개도 단순하다. 이 영화가 관객의 눈에 영화적 스타일을 맞추고 스펙타클을 선보여 흥행에 성공했다¹⁵⁾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생전에 경험하는 것들이 사후 세계에도 생기고 고조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긴장감있게 그려진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화에서 저승과 이승이 병행되도록 교차편집되면서 생전 경험은 사후 경험과 차이가 없어진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서로 나뉘어 있지 않고 저승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이승과 긴밀히 연관된 공간이다. 저승관과 이승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종교관이다. 바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관념(生死不二)인 것이다.¹⁶⁾

우리는 두 형제가 단명하는 데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절감하고 해원하는 과정에서 무속적 해법을 잃게 되며 환생을 거지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게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안다면 죽음 너머의 현존성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 영화는 단명과 영생이라는 모순구조를 불교적 저승관, 무속적 세계관으로 중재하면서 반운명론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국 영화 『신과 함께』의 서사는 불교의 저승관에서 출발하지만 삶과 죽음이 라는 대립항을 한국 무속적으로 풀어가는 해법을 모색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3. 인물형상과 대립구조

14) 김용화 감독의 할리우드 스펙타클은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477, 483-485면 참고.

15) 앞서 1장에서 흥행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475면.

16) 「영화로 보는 종교」, 72면.

41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차사본풀이등 한국의 무속신화가 웹툰 〈신과 함께〉를 거쳐 영화 1, 2편으로 변이된 양상에 숨은 의미지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물형상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본장에서는 역시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활동하는 이들을 크게 “소시민과 소외계층”, “삼차사”, “저승시왕과 저승관관”, “성주신”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1 소시민과 소외계층

영화 속에서 김자홍은 귀인, 흔히 하는 말로 의인에 해당되지만 작가나 대다수의 독자들 같은 보통사람으로 그려진다.¹⁷⁾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김자홍의 일생이 저승의 업경을 통해 관객들에게 펼쳐진다.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 휴일까지 반납하고 일하는 그의 사연은 감동적이다. 그리고 동생 수홍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군대에서 만행 노릇을 하는 선한 고참이다. 그는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롭힘 받는 관심사병을 위로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홍은 화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수홍은 관심사병인 후일병을 격려하다 총기오발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런 점에서 자홍이나 수홍은 보통사람, 일반 소시민에 다르지 않다. 한편 원일병 또한 군대에서 흔히 보는 관심사병으로 보통사람이며 총기오발사고를 은폐하려는 박대위의 행위가 다소 극적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현실적인 인물 형상이다. 이들이 가해자라면 자홍 수홍은 피해자가 된다.

이들에 비하면 두 형제의 모친이나 2편에 나오는 허춘삼과 허현동은 더 소외계층에 가깝다. 재개발지역에 사는 이들의 집은 철거 예정이다. 성주단지가고이 모셔져 있는 집은 혈연공동체의 공간이며 집이 헐리면 성주신도 함께 소멸해야 하는 운명이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허춘삼 할아버지

17) 이것은 웹툰 작가 주호민의 말이기도 하다: 「주호민 인터뷰: 무명 잉여가 인기 만화가 되까지」, 『표표』, 2014년 7월 24일자.

가 철거에 서명을 해서 보상금 1억을 받게 되지만 집 없이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 성주신은 할아버지의 사후를 대비해 중국 펀드에 투자를 했지만 주가가 폭락해서 원금의 30%도 남지 않게 되었다. 재개발 지역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현존하고 철거민 문제는 오늘날 대두되는 현실 문제이다. 따라서 영화 속 이야기에서 이슈화된 사회문제를 추출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저승사자들에 가택신까지 등장시켜 삶의 공간과 함께 그 이면에 있는 죽음의 공간을 병렬시키면서 죽음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이라는 상황에서 철거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이것은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뉴스 중 하나다. 영화는 소외받는 약자와 이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제시한다. 서사무가를 원천서사로 한 웹툰을 수사적, 논리적, 역사적으로 변형하여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신과 함께』.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관객의 몫이다.

3.2 삼차사

자홍, 수홍과 저승길을 동행하는 인물이 삼차사다. 1, 2편의 서사는 망자와 삼차사, 가택신까지 캐릭터의 조화와 협력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다.¹⁸⁾ 저승차사는 대개 혼자가 아니라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원사자 등이 함께 움직인다. 영화에서 해원맥, 이덕춘, 강림도령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버디(buddy)로서 상보적이고 상반적인 성격과 행동을 보여주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나간다. 이 중에서 삼차사를 이끄는 인물은 수석차사인 강림이다. 그는 저승차사지만 대체로 이승에 머문다. 지혜와 언변이 가장 뛰어난 그는 이승과 저승을 중형무진하며 사건 해결에 개입한다. 영화에서는 그가 원래 이승의 인간이었는데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설정이지만(2편) 이 대목은 원천서사 <차사본풀이에도 나온다.¹⁹⁾ 삼차사는 영화에서 주로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오는 임

18) 이런 구도를 '동반자형 이야기'라고 한다: 고운기, 「동반자형 이야기의 원형성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229면 참고.

19) 김진철,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한국콘텐츠학회

41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무를 수행한다. 인간은 이승과 저승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지만 원일병, 박대위는 꿈 속에서 이승을 넘어 저승을 방문하기도 한다. 반면 저승차사는 이승과 저승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두 공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승과 저승을 누비고 다니는 차사 강림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저승차사들은 원칙상 이승에서 인간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강림은 수홍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심을 갖고 그의 한을 풀기 위해 차사직까지 내린다. 그의 무리수는 월권일 뿐더러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된다. 원귀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강림은 원동연을 끝없는 자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박무신의 생명까지 지켜준다(1편). 그는 차사로서 냉철하지만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인정많은 모습도 드러낸다. 그가 은폐된 진실을 끝내 드러내면서 수홍은 이승에서 지은 업을 소멸하고 환생으로 이끌어진다(2편).²⁰⁾

한편 해원맥은 일직차사인데 시니컬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냉소적인 캐릭터로 자홍이 지옥의 관문을 제대로 넘을지 늘 회의적이다.(1편) 사인검(四寅劍)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뛰어난 무예로 악귀를 정지한다. 그는 수석차사가 부재할 때 그를 대신해 월직차사와 함께 망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맡는다.(2편) 이 때는 저승차사로서 단호하고 나름의 냉철한 판단으로 일을 진행한다.

월직차사 이덕춘은 유일한 여성캐릭터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음 지옥에서 기소될 내용을 읽어낸다거나 이승의 강림과 연결되어 지옥에서 변론을 하는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1편) 어린 감성의 소유자로 정 많고 눈물 많고 착한 성격의 캐릭터로 그려진다. 그런 캐릭터여서 여성으로 제시되는 것이 합당하며 월직차사라는 이름에서처럼 달(月)이 가진 여성성을 반영한 면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삼차사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저승차사들은 하얀 사츠에 검은색 베타이 정장을 착용해서 우리에게 익숙

문지』 15(8), 한국콘텐츠학회, 2015.08. 86면.

20) 영화에서 삼차사는 저승변호사로 등장한다. 원작 웹툰에서 진기한 변호사가 맡은 역할을 영화 속 강림이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불교에서 지장보살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 모습을 드러내보인다. 인간의 모습으로 현실했다지만 가택신도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등장한다. 이들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로. 회노애락을 느끼고 당황하는가 하면 연민과 본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에게 물씬 풍기는 인간미는 이전의 저승차사들과 가장 뚜렷한 차별점이다. 무섭고 거부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얼굴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이도록 한 것이다.²¹⁾ 반면 서사무가나 웹툰에서는 차사가 인간의 혼만 빼내거나 명부를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²²⁾ 그러나 영화 속 차사들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인정에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3.3 염라대왕과 저승판관

저승차사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고 염라대왕은 망자가 이승에 지은 죄를 심판하고 귀인으로 판명될 경우 환생을 명한다. 염라대왕이 생명을 붙여넣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신격에 올라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2편은 염라대왕이 사실 강림의 부친인 강문직 장군이였다는 대반전으로 끝난다. 그가 아들 강림이 진심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1000년 동안 해원맥, 덕춘과 함께 속죄의 여정을 걷게 했다는 설정이다. 그렇게 영화에서 강문직은 이승과 저승을 아우르는 통합적 질서의 회복을 도모하는 인물로 등극한다.

사실 염라대왕이 알고보니 생전에 이승의 인간이었다는 구상은 무리한 설정이 아니다. 우리 전통 문헌 설화를 살펴보면 생전에 높은 벼슬이지만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승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적지않다. 이것이 冥官譚인데 조선 전기부터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분포한다. 冥

21) 이것은 이전 드라마와 다른 모습이다. 1977년부터 2009년까지 간간히 방영되어온 TV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차사는 검은 두루마기에 창백한 얼굴에 무서운 눈을 가진 인상이었다. 근엄하고 단호하며 규율을 중시하는 이런 신의 모습은 드라마가 납량특집으로 주로 방영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시청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였다. 2016~2017년 tvN에서 방영된 「도깨비」에 나타난 모습도 보통사람의 이미지이다.

22) 최수용, 「주호민의 〈신과 함께〉에 나타난 한민족 신화 활용 스토리텔링 연구」, 『동아인문학』 41, 동아인문학회, 2017.12, 78면 참고.

41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官은 저승차사, 판관 뿐 아니라 염라대왕으로도 나타나는데 강문직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조선 초기를 살펴보면 朴遇가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天倪錄-閻羅王托求新袍』에 나오고 조선 중기의 김인후, 金穢, 尹朴 등의 경우도 그렇다. 구비자료로는 〈아버지는 염라대왕, 아들은 지상대왕〉이 있다. 영화에서 염라대왕은 잠시 해원맥으로 변신해서 이승을 방문하고(1편) 수홍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2편) 전통문헌에서 염라대왕이 이승에 내려온 사례가 적지않은 것은 이런 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²³⁾

또 다른 冥官의 경우로는 저승 판관이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두 판관은 꽤 유머러스한 인물로 묘사된다. 저승담 가운데 이는 戲謔譚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전통 문헌에서는 명관들이 자주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심지어 이들의 실수로 망자가 환생하기도 한다. 영화 속 차사들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데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가지 않고 연명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다(2편).²⁴⁾ 아무튼 이 영화는 저승판관들의 재치와 기지가 넘치는 이야기로 재구성되었다. 염라대왕의 이승행이나 저승차사의 실수담, 판관의 해학성을 차용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를 해결한다는 戲謔譚의 골똥이 영화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해학적이며 부조리한 인간 세태를 비판하는 점에서 풍자적이다. 원천 서사에서 웹툰을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런 변용을 거쳐서 우리 민족의 저승담은 서사적인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런 희극적 요소 때문에 철거에 저항하는 빈민의 비극을 묵도하고 영화 속 시퀀스에 몰입하여 현실문제를 절감하기란 쉽지 않다.

3.4 성주신

성주신은 가택신이다. 영화에는 성주신만 나오지만 웹툰에는 가택신으로 성주신, 조왕신, 축신, 문신, 철옹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각기 마루, 부엌, 측

23)곽정식, 「저승설화의 전승 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09, 68-70면, 82면.

24) 명관에는 저승차사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재판장에 배석하는 두 판관으로 국한시키고 구분했다. 戲謔譚에 관해서는 위의 자료, 74-77면 참조.

간, 뒷마당을 관장하며 허춘삼의 집을 지킨다. 허춘삼 집이 철거 위기에 몰리면서 성주신도 위기에 내몰린다.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바뀌면서 생긴 필연적 변화이기도 하다. 가택신은 전통 가옥에 살았는데 산업화가 전개되어 아파트 위주로 주거형태가 바뀌면서 가택신이 살 곳이 사라진 것이다. 아무튼 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주단지외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거주자 뿐만 아니라 성주신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²⁵⁾ 그래서 저승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철거를 극력 저지하려는 것이다. 집이 철거되면 성주신도 소멸될 운명이지만 그가 허춘삼 할아버지의 저승행을 늦추려는 것을 자신의 생존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성주신은 집을 철거하려 온 해결사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입장을 권유하는 구청 직원보다 훨씬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가택신은 대주를 위하는 존재이지 저승차사의 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 허춘삼을 데리러 염라대왕이 차사를 보내지만 막강한 성주신의 위력에 눌려 매번 허탕을 친다. 해원맥, 덕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손자인 현동이 입학할 때까지 저승행을 지연시켜주기로 하고 대신 저승담을 들려달라고 협상을 한다. 가택신은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도 차사 앞에 필연적으로 패배할 운명이다. 그렇게 성주신은 현실적으로는 대주를 위하고 대신 소멸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상과 같이 이승과 저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형과 형상화 방식을 서술해 보았다. 앞서 피해자로 분류된 자홍, 수홍과 달리 강림과 염라대왕 등은 해결자 형상이다. 특히 이승과 저승을 종횡무진하는 강림은 해결자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입체적으로 변형된 이런 인물 양상은 영화를 더 흥미롭게 하는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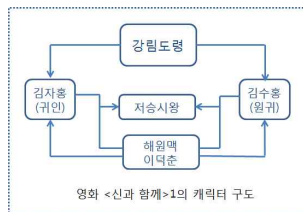
3.5 이해관계와 대립 갈등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원작 웹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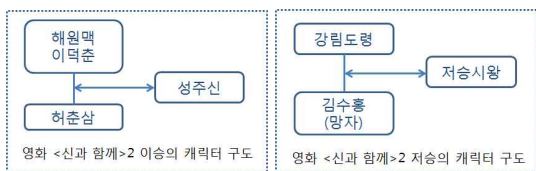
25) 웹툰에서 가택신의 ‘장소 상실(placelessness)’에 관해서는 이상민, 「신과 함께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2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6, 318면, 320면과 박항아, 「『신과 함께 :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08. 37면 참조.

42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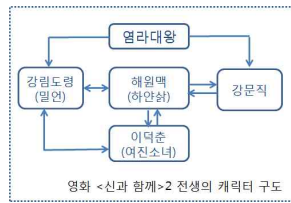
대립 갈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1편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시켜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²⁶⁾



한편 2편에서 이승과 저승의 인물 구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6) 본고의 네 도식은 유예의 논문에서 힌트를 얻었다. 물론 2편의 전생담에 나오는 인물들과의 관계도는 전적으로 필자가 그려본 것이다. 유예, 「원천소스로서 무속신앙 활용방안 연구-웹툰 <신과 함께>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02, 27면.



망자의 저승여정이야 재판과정이니 차치하고라도, 등장인물들간에 가장 두드러지는 대립구조라면 1편에서 강림과 원귀, 박대위 간의 관계이며 2편에서는 강림(밀연)과 해원백, 이덕춘의 관계라 할 것이다. 이밖에 보육원장, 구청직원(1편), 철거반, 해결사(2편) 등 우리 사회의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와 해결자로 나누게 된다면 평가척도에 따라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중간적 인물로도 나눌 수 있다. 1편에서 자홍의 환생을 돕는 삼차사가 긍정적 인물이라면 2편의 시작에서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잠시 부정적 인물로 나온다. 대신 허춘삼과 현동이를 도와 집을 지키고자 하는 성주신은 긍정적 인물이다.

만약 해원백과 덕춘이 허춘삼을 데려간다면 현동이에 집은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 이렇게 두 차사는 허춘삼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해원백과 성주신이 대결을 벌인다. 이들은 모두 신적인 존재다. 다만 가택신은 집을 지켜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기원을 드리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반면 저승차사는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 집을 방문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저승차사는 죽음을 집행하지만 가택신은 삶을 도모한다. 이런 상반되는 역할로 둘은 서로 충돌한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신과 믿고 의지하는 신의 대립은 삶과 죽음의 대립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원백은 이내 성주신 앞에 덕춘과 함께 무릎 꿇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성주신과 함께 해결사와 철거반을 막으려고 나선다. 두 차사는 허춘삼

42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의 저승행을 지연시키게 되면서 중간적 인물로, 허춘삼과 현동이를 도와주면서 긍정적 인물로 변신한 셈이다.

그리고 현동이를 입소시킬 수는 없으나 구청에 가서 생계지원비를 받도록 해보라는 보육원장이나 해외 입양을 권하는 구청직원은 부정적이라 할 수 없다. 이들은 법이라는 틀 안에서 판단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주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주신, 차사들과 충돌하는 철거반, 해결사 등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특히 공권력을 집행하는 철거반과 달리 사재업자들이 보낸 해결사들이 그렇다.

처음 해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허춘삼과 가택신, 삼차사 등과 대립했지만 해원백의 뛰어난 무예로 쉽게 물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철거반이 들이닥쳐서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는다. 철거반을 공권력이라 부르는 성주신의 말대로 ‘법’의 주체가 철거반(용역업체)로 모습을 보인다. 법이란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한 규범인데 철거반이 보여주는 현실세계의 법 집행이 모두의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저승차사와 공권력의 대립은 죽음과 법의 대립이며 질서와 무질서의 대립이기도 하다. 현실은 무질서하며 공권력조차 돈과 권력을 좇아 집행된다. 영화 속 이수라장이 된 철거촌의 모습은 이 사회의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다. 선한 사람이 불행하게 살다 죽고 악한 사람이 돈과 권력을 쥐고서 천수를 누린다. 현실은 이렇게 불공평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는 것은 공통된다. 그렇다면 죽고나서도 저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동시양을 막론하고 저승관이 생긴 것은 그래서이다. 영화 속에서도 누구든 때가 되면 죽어서 초군문 앞에 모인다. 죽음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찾아오기에 저승은 평등하며 질서를 갖춘 곳이다.²⁷⁾

지금까지 영화 『신과 함께』 1, 2편의 인물형상을 이해관계와 대립 갈등 구조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 저승시황에게 심판을 받는 모습은 중국의 관부를 그대로 옮긴 것처럼 보인다. 이런 체제는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 제도를 지하 명부세계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다: 『영화로 보는 종교』, 75면.

| 인물 | 이해관계 | 인물 평가 |
|---------------|------|-------|
| 자홍, 수홍, 어머니 | 피해자 | 긍정적 |
| 삼차사 | 해결자 | 긍정적 |
| 얼라대왕 | 해결자 | 긍정적 |
| 관관 | 가해자 | 부정적 |
| 허춘삼, 허현동 | 피해자 | 긍정적 |
| 성주신 | 해결자 | 긍정적 |
| 해결사, 용역업체 | 가해자 | 부정적 |
| 구정 직원, 고아원 원장 | 해결자 | 중간적 |

4. 나오며

이 영화는 불교와 한국 신화에 나오는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영화에서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닮음이 없다. 영화에서도 삶과 죽음 간의 대결이 벌어지지만 事必歸正으로 결말지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영화 1편의 부제가 “죄와 벌”, 2편의 부제가 “인과 연”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웹툰에서도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사필귀정이라고 하니 크게 다르지 않다.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는 그 적용 범위가 이승에 한정되지 않고 저승까지 확장된다.²⁸⁾

그러나 세상사 불평등한 모순을 사회의 소외된 약자들이 해결할 수 있던가? 영화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삼차사나 성주신이다. 관객이 바라는 이상세계를 꿈꾸는 것은 “신과 함께”나 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이승에서의 삶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은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가 된다. 현실과 이상의 틈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아이러니 때문에 영화는 인과에 따라 견고하게 구성되지 못했다. 그것은 영화에서 불교보다 무속적 요소가 앞서서일 수도 있다. 괴물들이 저승길을 가는 차사 일행을 덮치고

28) 「주호민의 〈신과함께〉에 나타난 한민족 신화 활용 스토리텔링 연구」, 85면.

42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이승이 뒤집힐 만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억지설정에서 영화의 주제는 희석된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두 영화의 결말이 사필귀정을 넘어 해원상생(解冤相生)으로 이어지기란 어렵다. 강림과 해원택이 휘두르는 사인감에 괴물들이 나가떨어지는 액션은 화려하지만 그만큼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生死不二)’는 영화의 주제는 빛을 잃게 되었다.

이런 설정은 당연히 재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재미에 치중하다보니 ‘생사불이’라는 주제를 가리게 된 설정은 이 외에도 대단히 많은데 주로 원작 “저승편”의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각색에서 생긴 무리수이다. 영화는 원작의 일부 인물을 삭제하고 두 인물을 하나로 만들기도 했다.²⁹⁾ “신화편” 3권은 제외하고라도 단행본으로 “저승편” 3권, “이승편” 2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하되 관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교육지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떤 시퀀스는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느슨한 구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영화가 산만하다는 평이 나온다. 이 영화가 원작 웹툰과 어디서 얼마나 다른지 보는 재미에 대한 관심과 호평은 많지만 작품성에 대한 예찬은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가 작품성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삶이란 죽음을 향하는 노정이며 죽음이란 삶의 한 조각일진대 해피엔딩으로 삶과 죽음은 무엇이 다르고 저승과 이승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물음에 속 깊은 대답을 하기란 어렵다. 영화는 이런 질문을 회피하는 대신 판타지와 신화로 흥행에 승부를 걸었고 도리어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 웹툰 사상 유례없는 공전의 히트작으로 컬트현상이 되어 우리에게 선보인 〈신과함께〉, 영화로 제작된 이 이야기에서 관객들이 등장인물을 따라가며 펼쳐진 지옥도를 그려본다면 그것은 세상의 풍속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려진 세상에서 삶과 죽음이 과연 다르지 않은지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은 오롯이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³⁰⁾

29) 군대 관심사병을 김자홍 동생으로 둔갑시킨 것 외에 웹툰에서 핵심인물인 진기환 변호사를 삭제시킨 예가 있다.

30) 이 논문 4장은 주로 『영화로 보는 종교』, 81-85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음을 밝힌다.

[Abstract]

The Narrative Structure and Character Images in *Along with the Gods*

Kim, Myeong seok

The film, *Along with the Gods*, the text of first episode is original webtoon "Afterlife", the text of second episode is "Present Life". The time of present life, modern Korean society, the road to Hades, the space of seven hells and characters - Jahong, Suhong, three angels of death and the kings of underworld etc. are same for the first and second film. In the second *AG*, in particular, afterlife story of three angels of death unfolds with the background of 1000 years ago - Goryeo dynasty era.

Jahong(the first episode) and Suhong(the second episode) complete three-step itinerary of death, afterlife and reincarnation. *Along with the Gods* is modern storytelling of traditional worldview of after life through these steps. As Jeju shamanist song *Chasabonpuri* is webtooned, cinematized into film, the characters show humanity, stereoscopic figuration, and the narrative largely extends through traditional and modern factors. There occurs rhetoric, logical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unique worldview unfolds in front of audience as the film reflects contemporary trends.

The characters could be divided into attacker, victim and resolver. When they're divided into affirmative and negative ones,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film also shows us the poverty of people on the margins of society and our indifference to them.

Chasabonpuri was influenced by Chinese Buddhist worldview of after life, however, however, it is the process of Korean shamanist solution how we solve the problem of life and death. *Along with the Gods* was produced with the motifs of Korean myths and the worldview of after life, it shows the extensity and irony of after life and present life.

Key word: Along with the Gods, Afterlife, Present Life, Life and Death, Reincarnation, Chasabonpuri, Worldview of After life

42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참고문헌

□ 기사 및 평론

- 김영진, 「〈강철비〉 <신과 함께-죄와 벌> <1987> 세 편의 한국영화에 대하여-상품, 예술, 계몽의 자리」, 『씨네21』, 씨네21(주), 2018.1.24
- 송경원, 「〈강철비〉 <신과 함께-죄와 벌> <1987>, 김소희-송형국-안시환 평론가 대담」, 『씨네21』, 씨네21(주), 2018.1.10
- _____, 「〈강철비〉 <신과 함께-죄와 벌> <1987>이 기댄 한국적 신파라는 환상-눈물의 알파람에 대하여」, 『씨네21』, 씨네21(주), 2018.1.30.
- 주호민 인터뷰: 무명 인어가 인기 만화가가 되기까지」, 『표표』, 2014년 7월 24일자.
- 「권과적인 씨네리뷰」 '신과 함께' 통 큰 '재능 낭비」, 『스포츠경향』, 2017.12.13.

□ 논문

- 강진옥 (2010). 「〈차사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지향」.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2010.12, 214면.
- 고윤기, 「동반자형 이야기의 원형성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229면.
- 곽정식, 「저승설화의 전승 양상과 현실주의적 성격」,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09, 74-77면, 82면.
- 권복순, 「제주도 〈시왕밧이굿〉에 나타난 시공간적 특성」, 『국제언어문학』 30, 국제언어문학회, 2014.10
- 김대범, 「〈신과 함께〉의 체형 공간화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4),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 김정숙, 「조선시대 저승체험담 속 죽음과 환생의 이념성」,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Journal of Korean Culture』 29, 2015.05
- 김정숙, 「전통문화 교육 자료로서 웹툰의 활용에 대한 고찰-〈신과 함께〉에 반영된 저승관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2015.03
- 김진철,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한국콘텐츠학회, 2015.08, 86-87면, 91면.
- 김현선, 「〈결가계굿〉의 유형적 특징과 의미- 저승차사와 저승 세계 성립에 대한 부분 습합적 견지에서」, 『한국무속학』 제29집, 한국무속학회, 2014.08.
- 김형근, 「한국무속의 죽음세계 연구- 불교 시왕의 수용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34집, 한국무속학회, 2017.02

- 나희라 (2006). 「고대 한국의 저승관과 지옥관념의 이해」.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12
- 박향아, 「『신과 함께 :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08, 37면.
- 양진호 (2015). 「시상 이미지의 현대 콘텐츠 변용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6), 건국대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 유예, 「원천소스로서 무속신앙 활용방안 연구-웹툰 <신과 함께>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02, 22면, 27면.
- 이강숙, 「저승생환담의 서사적 특징과 죽음명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 『우리말글』 63, 우리말글학회, 2014.12
- 이상민, 「신과 함께에 나타난 공간성과 아이러니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2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6, 318면, 320면.
- 이용복 (2011). 「[공연 리뷰] 가오성진의 <저승>」. 『공연과이론』 (42),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11.06
- 장은진, 「한국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후세계의 환상성- 웹툰 <신과 함께 - 저승편>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1,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6.12
- 정수희, 「전통문화콘텐츠의 현대적 활용-웹툰 <신과 함께-이승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12
- 조형래, 「한국 '영화의 신'과 함께」,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8.08, 472면, 475면, 477면, 483-487면, 494면.
- 최수용, 「주호민의 <신과 함께>에 나타난 한민족 신화 활용 스토리텔링 연구」, 『동아인문학』 41, 동아인문학회, 2017.12, 75면, 78면, 85면.
- 허수경, 「죽음의 세계를 통해 현재를 보다-작가 주호민의 웹툰 <신과 함께: 저승편> 비평」, 『글로벌문화콘텐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1.12
- 황인순 (2015). 「본뜰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12

□ 단행본

- 졸고, 『영화로 보는 종교』, 위덕대학교출판부, 2018, 67-69면, 70, 75, 77면, 81-85면.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3일 접수되어 12월 10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